

### 지대치 축조법

— 파괴된 치관을 아말감 축조에 의해서 지대치로 이용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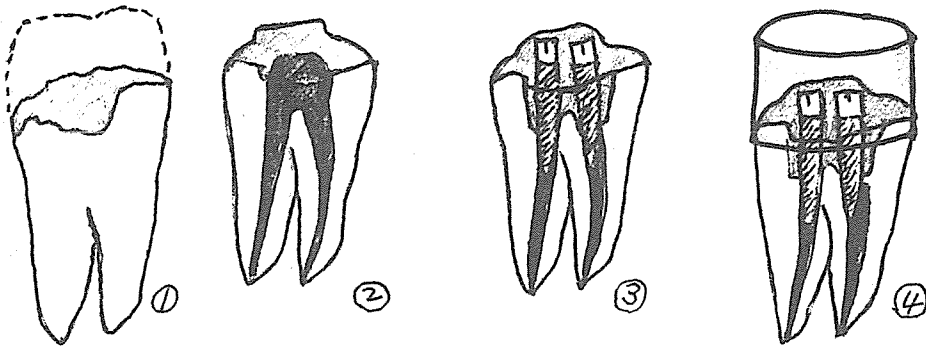
지대치로 사용해야 할 치아가 외상때문이거나 혹은 심한 충치로 인해서 치관부가 파괴되어 버린 경우가 있다. 이때 부분파괴나 작은 충치는 와동형성후 아말감 충전이나 cast coping으로 회복해 줄 수가 있으나 가끔 매우 심해서 지대치 치관 부위가 거의 상실된 경우에 발치가 적응이나 꼭 이용해야 될 경우에는 치근단 병소가 없으면 근관충진을 깨끗이 한후에 아래 방법으로 이용할 수가 있다. 이번호에는 아말감 축조를 설명한다.

그림 1 : 구강검진을 통해서 치질파괴가 치근까지 연장되었는가를 검사하고 또 X-ray 사진에 의해서 치근단 병소의 유무를 확인한다. 충치나 파절이 치근까지 연장되거나 치근단 병소가 있으면 불가능하다.

그림 2 : 파괴된 부위의 충치를 완전히 제거하고 근관충진을 시행한다. 이것이 끝나면 치은압배면사로서 치은압배를 하고 인상채득후 모형을 만든다. 모형상에서 교정용 band나 충전시 사용되는 matrix band로 지대치 치경부에 꼭맞게 ring을 만든다. 이때 welding machine이나 혹은 low fusing solder와 alcohol lamp로서 간단하게 제작할 수 있다.

그림 3 : 충전된 근관을 reamer나 bur로서 근관입구를 확장하고 screw post (Dentatus: Sweden)나 obturation screw (F. K. G. : Swiss)와 driver를 이용해서 끼워넣는다. 이때 충전된 pulp chamber 부위에 충전제를 완전히 제거하고 치질을 노출시킨다.

그림 4 : 이미 만들어진 band ring을 치아에 맞추어 넣고 아말감 충전을 해서 지대치를 축조한다. 이때 주의할것은 충전한후 band를 곧 제거하지않고 그 다음날 지대치 형성할 때에 제거한다.



서울특별시 인정 제12호

# 아세아치과기공소

대표 이 흥 규

서울 종로구 종로 5가 115번지

☎ (763) 8559 · 7518